

5월 15일(월) / 고후7-9장

▶**내용요약:**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고린도교인들과의 화해를 기대하며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다고 한다. 8장은 마게도냐교회의 풍성한 연보를 통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한다. 이어 이 일을 맡은 신실한 일꾼으로 디도를 보내기로 추천한다. 9장은 8장에 이어 연보의 문제를 말하는데 특히 연보에 대한 성도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 기술한다. 연보는 미리 준비해야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질문:** 바울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칭찬한 교회들은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가?(8장)

▶**생각하기:** 바울은 근심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고 한다. 근심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7:10)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가?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자!

5월 18일(목) / 갈4-6장

▶**내용요약:** 4장은 종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다. 5장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기록한다. 6장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참된 모습이 기술된다. 서로 짐을 지고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

▶**질문:**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자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는가?(6장)

▶**생각하기:**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6:9)고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 열매가 지체되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성서인**이 되자!

5월 21일(주일) / 빌1-2장

▶**내용요약:**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교회에 보낸 편지이기에 옥중서신으로 불린다. 옥중서신으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첫번째 교회가 있다. 이 책의 기록목적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그가 쓸 것을 공급하면서 옥바라지를 해 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함에 있다. 빌립보서가 다루는 주제는 성도의 교제이다. 1장은

5월 16일(화) / 고후10-13장

▶**내용요약:** 10장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교인들에게 사도직과 자신의 입장을 변호한다. 외도의 초라함과 악함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강한 자임을 밝힌다. 11장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비난하며 자신의 사도됨을 설명하고자 이제까지 당한 고난의 행적을 기록한다.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다. 13장에서는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고린도교회에 방문할 것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한다.

▶**질문:**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육체에 가시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가?(12장)

▶**생각하기:**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복음전도자로서 자신이 당한 고난들을 열거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욕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뻔 하였으니...”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과연 주님으로 인해 고난 받은 일이 얼마나 될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5월 19일(금) / 엡1-3장

▶**내용요약:**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로마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이다. 주제는 교회론을 심도있게 다룬다. 1장은 문안 인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개인의 구원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설명한다. 3장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 )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1장)

▶**생각하기:** 바울은 로마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3:13)고 기술한다.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영광이 되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고백은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지를 잘 보여준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당하셨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고난당하고 있는가?**

바울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자신의 매임으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음을 드러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한다. 2장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겸손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시신 모범을 제시한다. 이어 성도는 항상 기뻐할 것과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보내는 이유를 밝힌다.

▶**질문:**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으로 바울이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2장)

5월 17일(수) / 갈1-3장

▶**내용요약:**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바울이 기록하였다.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다룬다. 1장에서 바울은 저작 동기로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강조한다. 2장은 2개의 사건, 예루살렘공의회와 안디옥에서 바울이 베드로와 충돌했던 사건을 다룬다. 바울은 이 두 사건을 회고하면서 오직 은혜로 인한 구원을 가르친다. 3장은 율법주의에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인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책망하면서 율법의 한계와 기능을 알려준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 )로 삼으셨느니라”(2장)

▶**생각하기:** 바울은 1장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자신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음을 강조하면서 만일 자신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가?**

5월 20일(토) / 엡4-6장

▶**내용요약:** 4장은 교회의 일치에 대해 언급하고 각자 은사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이어 새 사람으로 살아야함을 권면한다. 5장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사랑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행할 것을 권면한다. 6장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윤리를 다룬 후에 영적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진신감을 입어 무장할 것을 가르친다.

▶**질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자녀가 땅에서 얻게 되는 축복은 무엇인가?(6장)

▶**생각하기:** 바울은 4장에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각자 다른 은사들인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의 은사를 언급한다. 서로 은사가 다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힌다. 우리는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은사만을 자랑하지 말고 각자의 은사들이 모두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는 성서인**들이 되자!

▶**생각하기:** 바울은 1장 12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한다. 옥중에 매임과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그의 고백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우리 또한 현재의 고난과 문제가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기쁨으로 이를 감당해야할 것이다.